

삼국지



2019년 10월 1일(화) ~ 2020년 1월 5일(일)

주최 : 규슈국립박물관 · 후쿠오카현, 중국문화교류중심, NHK후쿠오카방송국, NHK플랫폼 규슈, 서일본신문, 아사히 신문사

범례 -작품 번호는 본 전시회 도록 및 전시실 안의 번호와 일치합니다. 단, 전시 순서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시 기간 중 전시 교체는 없으나 상황에 따라 전시 장면이나 전시 작품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결번은 출품되지 않는 작품 번호입니다.
 -☆ = 일급문물
 -음성 가이드 : 550엔 / 대

음성No.(☞), No., 지정, 작품 명칭, 작자/출토 연도/출토지 등, 시대/연대 및 세기, 소장	해설
프롤로그 전설 속의 삼국지	
① 1 관우상 명나라시대 · 15~16 세기 신상사박물관	관우는 무신(武神)으로 숭배되었다. 이 조각상은 실제처럼 생생하게 조형되었으며, 전래품 중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다운 관우상이다.
2 공명출산도 명나라시대 · 15 세기 상하이박물관	유비의 삼고초려 끝에 제갈량(자는 공명)이 군사로 그의 휘하에 들어간 장면을 그렸다.
3 고사인물도 구영 필 명나라시대 · 16 세기 상하이박물관	구영은 삼국지에 관련된 작품을 다수 제작했다. 이 작품도 그중 하나이며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간 장면을 그린 것이라는 설도 있다.
4 적벽부책 장서도 필 명나라시대 · 1626 년 텐진박물관	북송시대의 문인 소식은 삼국시대의 영웅들을 생각하며 전 · 후 두 편의 적벽부를 지었다. 이 작품은 명나라의 장서도가 행서로 쓴 『전 적벽부』이다.
5 후적벽도 두루마리 육지 필 명나라시대 · 1553 년 상하이박물관	명나라시대 문징명이 삼국지의 옛 전장 적벽의 영웅들을 생각하며 글로 옮긴 『후적벽부』에 육지가 그림을 더했다.
② 6 관제묘 벽화 내몽골 자치구 후허하오터시 칭수이허현 수이먼타 복룡사 전래 ③ 청나라시대 · 18 세기 내몽골박물관	관제묘 안을 단장한 벽화. 유비, 장비, 관우가 황건의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 등이 생생하게 묘사되었다.
7 관우 · 장비상 장육정 제작 청나라시대 · 19 세기 텐진박물관	관우는 한때 조조의 곁에 머물렀다. 장비는 관우가 자신들을 배반했다고 지레짐작하고 분노했지만 나중에 오해를 풀고 관우에게 사과했다.
8 조운상 안후이성 보저우시 화극루 전래 청나라시대 · 17~18 세기 보저우시박물관	유비는 조조군의 공격을 받아 장판파에서 처자식과 생이별했다. 하지만 유비군의 조운이 단 기필마로 적진에 들어가 유비의 아들 아두를 무사히 구해냈다.
9 삼국고사도 청나라시대 · 18~19 세기 텐진박물관	『삼국지연의』의 명장면. 서민들 사이에 널리 퍼졌던 삼국지 이야기 그림의 예를 보여준다.
제1장 조조, 유비, 손권: 영웅들의 계보	
10 ☆ 옥패지 1973년 안후이성 보저우시 동원촌 1호묘 출토 후한시대 · 2세기 보저우시박물관	이 유물이 발견된 묘에는 조조의 아버지 조송과 그 부인이 묻혀 있었다는 설이 유력하다.

음성No.(ㄱ), No., 지정, 작품 명칭, 작자/출토 연도/출토지 등, 시대/연대 및 세기, 소장	해설
11 ‘회계조군상구’ 벽돌 1976~1977년 안후이성 보저우시 원보경 1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보저우시박물관	이 명문은 조조의 선조 중에 회계군(지금의 저장성 일대) 장관이 있었던 사실을 알려준다.
12 인물 그림 벽돌 1976년 안후이성 보저우시 백과수촌 1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보저우시박물관	조씨와 관련된 인물을 그린 것일까.
4 13 ☆ 옥장식 검 1968년 허베이성 바오딩시 만청구 증산정왕 유승부부묘 출토 전한시대·전 2세기 허베이박물관	유승 대에 들어와 청동으로 만들던 검과 도를 철로 만들게 되었다. 이 검은 청동제 보검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유물이다.
14 ☆ 향아리 1968년 허베이성 바오딩시 만청구 증산정왕 유승부부묘 출토 전한시대·전 2세기 허베이성문물연구소	금과 은으로 도금하고 초록색 유리를 배치하였다. No.15와 함께 유비의 선조 증산정왕 유승 시절의 영화를 전해준다.
15 ☆ 표범 1968년 허베이성 바오딩시 만청구 증산정왕 유승부부묘 출토 전한시대·전 2세기 허베이박물관	같은 모양의 물건이 4점 발견되었다. 귀족이 앉는 깔개의 네 귀퉁이를 누르는 데 사용한 물건으로 추정된다.
16 화객선 2010년 광시 좡족 자치구 구이강시 양군동 14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오)·3세기 광시문물보호고고연구소	연해 항로와 하천을 항해하는 데 적합한 이런 종류의 배는 오나라의 해양 진출과 대외 무역을 뒷받침했다.

제2장 한왕조의 빛과 그림자

5 17 ☆ 사자 산둥성 쑤보시 린쯔현 학서 구 소장 후한시대·2세기 산둥박물관	‘낙양에서 만든 사자’라는 뜻의 명문이 있다. 한대에는 가끔 서역에서 사자가 헌상되었다.
18 짐승 모양 장식 1969년 허베이성 딩저우시 증산목왕 유창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딩저우시박물관	다양한 석재를 통으로 조각한 작은 짐승 모양 장식품은 기원전후 각지에서 조금씩 발견되며 삼국시대 이후에도 계속 제작되었다.
19 빨승곳 1969년 허베이성 딩저우시 증산목왕 유창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딩저우시박물관	매듭을 푸는 도구로, 아름다운 옥으로 조각하였다. 높은 신분의 상징으로 추정된다. 이 유물도 후한시대 왕의 소유물이었다.
20 허리띠 꾸미개 1969년 허베이성 딩저우시 증산목왕 유창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딩저우시박물관	불로불사를 관장하는 여신 서왕모의 머리 장식을 본뜬 허리띠 꾸미개. 서왕모 신앙은 한나라 시대에 시작되어 삼국시대에도 이어졌다.
21 코끼리에 탄 사람 인형 1954년 허난성 휘양시 방홍거이단 72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휘양박물관	코끼리는 남방의 헌상품인 동시에 불로장수의 신선이 타는 동물로 여겨졌다. 손권도 조조에 게 코끼리를 선물한 적이 있다.
22 ‘창천’ 벽돌 1976~1977년 안후이성 보저우시 원보경 1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중국국가박물관	조(曹)씨 일족의 묘에 사용된 벽돌. 명문이 황건적의 구호인 ‘창천이사(蒼天已死), 황천당립(黃天當立)’과 매우 유사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23 ‘황신복두’ 진묘병 1979년 산시성 바오지시 산차항 1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바오지청동기박물관	‘황제 복두가 사자와 유족, 자손의 재앙을 없애준다. 마치 울령과 같다’고 쓰여 있다. 주술이지만 글의 끝맺음이 당시 행정 문서와 비슷하다.
24 ‘천제사자’ 도장 1987년 산시성 바오지시 양평항 거가촌 출토 후한시대·2세기 바오지시천창구박물관	후한시대 원시 도교 집단의 인장. ‘천제사자(하늘 최고신의 사자)’라고 새겨져 있다. 거북이 모양 손잡이는 관청 공식 도장을 본뜬 것이다.
25 삼단식 신선무늬 거울 1984년 쓰촨성 옌양시 서산 출토 후한시대·2~3세기 옌양시박물관	거울 뒷면의 무늬는 3단으로 나뉘며 각각 신, 선인, 용 등을 나타낸다. 215년 조조에게 항복한 오두미도라는 종교 단체와 밀접한 유물로 추정된다.
26 ☆ 술통 1969년 간쑤성 우웨이시 뇌대묘 출토 후한시대·2~3세기 간쑤성박물관	황제가 사용하던 물건 못지않게 호화로운 용기. 장장군의 묘에서 출토되었다. 장장군은 후한 말기 권세를 떨친 동탁의 부장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음성No.(ㄱ), No., 지정, 작품 명칭, 작자/출토 연도/출토지 등, 시대/연대 및 세기, 소장	해설
7 27 의장 행렬 인형 1969년 간쑤성 우웨이시 뇌대묘 출토 후한시대·2~3세기 간쑤성박물관	지금의 간쑤성의 유력자 장장군의 묘에 부장되었다. 장장군은 후한 말기에 한때 조정에서 권력을 휘둘렀던 동탁의 부장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28 희평석경 허난성 옌시 태학유적 출토 후한시대·2세기 상하이박물관	논어 등 7가지 경서의 문장을 정하여 비석에 새긴 것으로, 대부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 동탁의 난으로 파괴되고 말았다.
29 가래 2004년 허베이성 쥐저우시 가원공지 출토 후한시대·1~3세기 쥐저우시박물관	농기구의 날 끝. 후한시대, 국가 소관이었던 철제 농기구 관리가 민간으로 옮겨갔다.
30 쟁기 2001년 허베이성 쥐저우시 연조공지 출토 후한시대·1~3세기 쥐저우시박물관	농기구의 날 끝. 생산력의 향상은 각지 호족의 대두를 촉진했다.
6 31 동제 식기 2005년 허베이성 쥐저우시 상념두 전실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쥐저우시박물관	동제 식기는 묘에 부장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실용품은 아니지만, 당시의 식사 문화를 잘 알려준다. 밥상 앞에서 정좌하거나 책상다리를 하고 식사를 했다.
32 ☆ 경대 2004년 허베이성 쥐저우시 능운할단공지 1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쥐저우시박물관	부장용 모형이지만 당시의 거울 사용법을 알 수 있다. 기둥의 중간 언저리에 있는 U자형 테에 거울을 얹었다.
33 ☆ 다층등 2004년 허베이성 쥐저우시 능운할단공지 1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쥐저우시박물관	얇은 판 형태로 만든 사람이나 동물을 7층에 걸쳐 화려하게 장식했다. 사후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 추정된다. 꼭대기에는 등명 접시가 있다.
34 샷자리무늬 도관 2004년 허베이성 쥐저우시 능운할단공지 1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쥐저우시박물관	측면에 식물의 잎을 엮어 만든 깔개인 샷자리에 놓린 흔적이 있다. 허술한 도제 관을 사용한 것은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한 것인지도 모른다.
8 35 ☆ 오층 곡창루 1973년 허난성 자오궈시 산양구 마작 출토 후한시대·2세기 자오궈시박물관	출토지인 자오궈시는 후한의 마지막 황제 헌제가 220년 위문제 조비에게 양위한 뒤 여생을 보낸 곳이다.
36 ☆ 사층 곡창루 2009년 허난성 자오궈시 마춘구 백장 출토 후한시대·2세기 자오궈시박물관	곡물 자루를 지고 들어가 건물 안에 넣는 사람, 경비를 서는 사람, 경비견 등이 표현되어 있다.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지주로 보인다.
37 ☆ 삼연속 곡창루 2005년 허난성 자오궈시 건설은행공지 출토 후한시대·2세기 자오궈시박물관	후한시대 자오궈의 호족들은 모형임에도 불구하고 곡물 창고를 중요하게 여겼고 앞다투어 호화스럽게 만들었다. 창고 안의 곡물은 부와 권력의 원천이었다.
38 저택 2001년 허난성 자오궈시 산양구 감업공사 출토 후한시대·2세기 자오궈시박물관	망루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성채와 같은 견고한 저택. 후한시대 호족들은 저장해둔 곡물로 사병을 고용하고 군사력을 갖추었다.

제 3 장 위, 촉, 오: 삼국의 정립

9 39 노기(방아쇠뿔치) 2003년 산둥성 린이시 왕희지 고거 세연지 1호묘 출토 삼국시대(위)·241년 린이시박물관	쇠뇌는 가로로 해서 쏘는 활의 한 종류로, 본체인 목비의 뒷부분에 내장된 청동 방아쇠뿔치를 움직여 활을 발사한다.
40 모(투검창) 1969년 허베이성 딩저우시 증산목왕 유창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딩저우시박물관	삼국지 시대에 널리 사용된 무기. 납작하고 홀쭉한 투검창은 나무 손잡이 끝에 달아 적을 찌르는 데 쓰인다.
41 극(가지창) 1969년 허베이성 딩저우시 증산목왕 유창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딩저우시박물관	卜자형의 가지창은 투검창과 마찬가지로 손잡이 끝에 달거나 직접 손에 쥐고 사용한다.
42 검 1989년 허베이성 쥐저우시 기구촌 출토 후한시대·2~3세기 쥐저우시박물관	값싸고 잘 부러지지 않는 철검이 청동검을 제치고 주류가 되면서 검은 길고 크게 제작되었다.

유물No.(㉠), No., 지정, 작품 명칭, 작자/출토 연도/출토지 등, 시대/연대 및 세기, 소장	해설
43 모 (투겁창) 1998년 쓰촨성 멩양시 백호취 32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축)·2~3세기 멩양시박물관	창자루를 포함해 전체를 철로 만든 투겁창의 한 종류. 투창이었으리라 추정된다.
44 극 (가지창) 2007년 쓰촨성 멩양시 송림파 1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축)·2~3세기 멩양시박물관	가지창은 이 유물과 같이 옆으로 뻗은 날이 활 모양으로 굽은 것을 비롯해 다양한 형태로 발전했다. 그중에는 무예 실력이 출중해야 다룰 수 있는 특수한 가지창도 있었다고 알려진다.
45 고리자루칼 (1) 1990년 쓰촨성 멩양시 하가산 출토 (2) 1987년 쓰촨성 멩양시 양가점 출토 (3) 1990년 쓰촨성 멩양시 출토 후한~삼국시대(축)·3세기 멩양시박물관	삼국지 시대에는 서로 다른 철을 겹쳐 붙이는 단야 기술의 혁신으로 철제 칼이 보급되었다.
46 구양(방패의 일종) 1998년 쓰촨성 멩양시 백호취 애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축)·3세기 멩양시박물관	뒷면에 손잡이가 달린 방패의 한 종류. 상하의 막대기 부분과 중앙의 돌기로 적의 공격을 받아 내며 때로는 되받아친다.
47 ☆ 쇠뇌 1972년 후베이성 징저우시 기념성 출토 삼국시대(오)·222년 후베이성박물관	노기(청동제 발사 장치)에는 오나라의 연호 ‘황초원년’과 제작자, 소유자, 사용자의 이름을 새겼다. 소유자와 사용자의 이름을 명기하는 것은 오나라 쇠뇌의 특징이다.
48 화살촉 후베이성 츠비시 적벽고전장 터 출토 철제 화살촉: 후한~삼국시대(오)·3세기 츠비시박물관	고대 중국에서는 동제 화살촉이 주류였으나 한나라시대 이후 제철 기술이 발달하고 쇠뇌의 성능이 개량되면서 보다 강고한 철제 화살촉의 보급이 촉진되었다.
49 ☆ 고리자루칼 1987년 후베이성 어저우시 악강중합원료창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어저우박물관	칼등에는 나뻐 기운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길 바라는 명문을 금 상감으로 새겼다. 손권이 명문 ‘대오(大吳)’를 넣어 주문 제작한 칼은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50 무사 인형 1999년 후베이성 츠비시 노림판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츠비시박물관	오나라 묘 입구 부근에 놓여있던 무사 인형. 투구를 쓴 모습에서 삼국시대 전투 장비의 일면을 확인할 수 있다.
51 군선 모형 2015년 어저우박물관	장강(양쯔강) 유역에서 싸운 위나라와 오나라는 대형 전함 ‘누선’을 제작했다. 이 모형은 당시 누선의 모습을 추측하는 데 참고가 된다.
 52 마름쇠 1985년 산시성 한중시 맨현 정군산 출토 후한~삼국시대 3세기 맨현박물관	좁고 험한 길이나 건널 수 있는 얇은 여울 등 교통의 요지에 뿌려놓아 적의 행군을 막았다. 위나라와 촉나라가 격돌한 정군산에서 대량 출토되었다.
53 ‘곤설’ 탁본 원본: 산시성 한중시 석문수도 20세기(원본: 후한시대·3세기) 한중시박물관	한중을 제패한 조조는 마치 눈처럼 물보라가 치는 포하에서 바위 표면에 ‘곤설(袁雪)’이라 썼다. 부하가 ‘곤(滾)의 삼수변이 빠졌다’고 하자 조조는 포하를 가리키며 ‘이게 바로 물이 아닌 가’ 하고 응수했다.
54 ☆ ‘편장군 인장’ 금도장 1982년 충칭시 장베이구 취현암 부근 수집 후한시대·1세기 충칭중국삼협박물관	‘편장군 인장’이라고 새겨져 있다. 조조에게 항복한 관우는 편장군에 임명되었다. 당시 이 유물과 같은 인장을 받았으리라 추정된다.
 55 동자 그림 접시 1984년 안후이성 마안산시 위산구 주연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마안산시 삼국주연가족묘지박물관	바깥면의 명문을 통해 촉나라 물건임을 알 수 있다. 오나라 사람으로 촉의 명장 관우를 생포한 인물인 주연의 묘에서 출토되었다.
56 숫다리미와 화로 1984년 안후이성 마안산시 위산구 주연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마안산시 삼국주연가족묘지박물관	숫다리미와 화로 한 쌍. 달군 숫을 숫다리미에 넣고 옷 주름을 폈다. 오나라의 주연이 생전에 사용한 물건으로 추정된다.
57 비녀 1996년 안후이성 마안산시 위산구 주연가족묘지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마안산시 삼국주연가족묘지박물관	오나라 중신 주연의 자손 세대의 묘에서 출토되었다. 한나라시대의 사진 자료에서 이와 같이 머리에 비녀를 꽂은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다.
58 출정하는 무사상 후한~삼국시대(축)·2~3세기 원난성박물관	관이나 갓 모양으로 보아 역사서에 ‘서남이’라 기록된 사람들의 모습이라 추정된다. 남방은 촉나라에 반기를 들었으나 제갈량이 정벌에 나서 그들을 진압하고 위무했다.

유물No.(㉠), No., 지정, 작품 명칭, 작자/출토 연도/출토지 등, 시대/연대 및 세기, 소장	해설
59 ☆ ‘맹등’ 도장 1954년 원난성 자오통시 이평채 2호묘 출토 삼국(축)~서진시대·3세기 원난성박물관	『삼국지연의』에는 제갈량이 남방 정벌 당시 맹획과 싸운 일화가 나온다. 맹획은 창작된 인물이지만, 이 인장을 통해 맹씨 성의 유력자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60 초두 1960년 원난성 자오통시 계가원자 1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원난성박물관	금속 조각 기법인 축조는 오나라 남부의 교주(지금의 광둥, 광시 일대)의 청동기에 많이 보인다. 촉나라 남부에서 출토된 이 유물은 두 지역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61 제량호 1960년 원난성 자오통시 계가원자 1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원난성박물관	No.60~63의 청동기는 모두 중국 내륙 지방에서 촉나라 남부로 이주한 유력 호족의 묘에서 출토되었다. 출토품으로 추정하건대 그곳의 문화는 내륙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제갈량이 정벌한 남방의 ‘아만스러운 이민족’ 주요 세력의 모습을 어렵듯이 추측할 수 있다.
62 시루 1960년 원난성 자오통시 계가원자 1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원난성박물관	가마솥 위에 둥근 그릇을 놓고 사용하는 찜기이다.
63 박산 등잔 받침대 1960년 원난성 자오통시 계가원자 1호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원난성박물관	원래 뒷부분에 불 접시가 있어 기름과 식물로 만든 심지로 불을 붙였다.
64 사모 1956년 원난성 쿤밍시 석채산 3호묘 출토 석채산 문화기·전 2세기 원난성박물관	『삼국지연의』에 장비가 애용하는 무기로 묘사된 ‘사모(蛇矛)’를 떠오르게 한다.
 65 ‘조휴’ 도장 2009년 허난성 위양시 명진현 조휴묘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위양시문물고고연구원	묘의 연대와 규모로 보아 조조의 친척이자 위나라 장군으로 활약한 조휴의 인장임이 확실하다. 『삼국지』 등장인물의 것으로 확실하게 밝혀진 유일한 인장이다.
 66 ☆ 허리띠고리 2009년 허난성 위양시 명진현 조휴묘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위양시문물고고연구원	조조의 조카 조휴의 묘에서 출토되었다. 조휴는 오나라와의 전투 끝에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67 허리띠고리 1993년 안후이성 마안산시 자호전자선창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마안산시박물관	허리띠 고정 금구. 물고기를 감싸 안은 동물의 모습을 표현했다. 오나라 묘에서 출토되었으나, No.66은 위나라 조휴의 묘에서 발견된 것이다.
68 돌공 2004년 안후이성 허페이시 합비신성 유적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허페이시 루양동푸습지공원관리처	돌공은 위나라가 쌓은 합비신성에 준비되어 있던 무기이다. 성벽 위에서 떨어뜨리거나, 오나라 군대를 조준해 투석기로 날렸으리라 추정된다.
69 당차두 2004년 안후이성 허페이시 합비신성 유적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허페이시 루양동푸습지공원관리처	위나라의 대오 전선 기지였던 합비신성에서 출토되었다. 전장에서 적을 쫓아 흩뜨리기 위해 전투용 마차의 차축 양 끝에 단 무기로 추정된다.
제 4 장 삼국 탐방	
 70 ☆ ‘관내후인’ 금도장 1976년 산둥성 신타이시 동석래 출토 후한~삼국시대(위)·2~3세기 산둥박물관	한·삼국시대의 관내후는 황제, 제후왕, 열후 다음 가는 신분으로,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었다.
71 ☆ ‘위 귀의저후’ 금도장 삼국시대(위)·3세기 간쑤성박물관	위나라가 중국 서북 지방의 저(氐)족 지도자에게 전달한 금 인장. 위, 촉, 오나라 모두 변방 제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그들에게 금이나 은으로 만든 인장 등을 건넸다.
72 ☆ 자 1972년 간쑤성 자위관시 신성 2호묘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간쑤성박물관	동물의 뼈를 얇게 갈아 눈금을 새긴 자. 삼국시대의 1척이 약 24cm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73 ☆ 오룽 버루 1994년 산둥성 이난현 복채 2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위)·2~3세기 이난현박물관	용 다섯 마리가 부각된 뚜껑이 있는 둥근 버루. 삼국지 시대의 먹은 가루 형태였다. 버루에 먹과 물을 넣고 돌로 갈아 먹물을 만들었다.
74 ☆ 묵서지 1987년 간쑤성 란저우시 복룡평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란저우시박물관	둥글게 자른 이 종이는 동제 거울을 담은 옷칠 거울함에 완충재로 깔려있던 것으로, 문장 내용으로 보아 편지를 재활용한 듯하다.

음성No.(ㄱ), No., 지정, 작품 명칭, 작자/출토 연도/출토지 등, 시대/연대 및 세기, 소장	해설
75 짐승 무늬 거울 1994년 수집 후한시대·1~2세기 뤼양박물관	동물 두 마리를 대각선상에 배치했다. 명문은 다음과 같다. ‘이 거울에는 상서로운 동물 천록(天祿)이 있다. 거울 주인은 왕후나 귀족처럼 부유하리라.’
76 주사위 놀이판 1988년 허난성 뤼양시 송현 오촌 출토 후한시대·2세기 뤼양박물관	고대 중국에서 유행한 주사위 놀이류의 게임판. 판 위에 말을 놓고 주사위 같은 물체로 숫자를 정해 말을 움직였다.
77 변소 산시성 바오징시 출토 후한시대·2세기 바오지청동기박물관	돼지우리 옆에 변소를 병설한 모형. 돼지에게 인분을 사료로 주었다. 이런 형태의 변소 모형은 위나라 수도였던 지금의 허난성에서 많이 출토된다.
78 방격규구 새무늬 거울 1955년 라오닝성 라오양시 삼도호 1호 벽화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위)·2~3세기 라오닝성박물관	No. 76과 무늬가 유사하다. 이 거울의 무늬와 명문에는 일본의 고분에서 출토된 거울과 공통되는 요소가 있어 주목된다.
79 세발술 1983년 라오닝성 라오양시 동문리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라오양박물관	다리가 셋인 술과 술을 데우는 초두 모두 한왕조 세력권에 널리 보급되었다.
80 초두 1983년 라오닝성 라오양시 동문리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라오양박물관	지금의 라오양시 일대에서는 No.79, 80과 같이 몸통이 둥근 것이 특히 인기 있었다.
81 손잡이가 달린 용기 2008년 라오닝성 라오양시 묘포 16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라오양박물관	공손씨 정권이 할거한 중국 동북 지방의 라오닝성 라오양시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며, 일본 열도에서도 비슷한 물건이 발견된다.
82 화로 2008년 라오닝성 라오양시 묘포 16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라오양박물관	원과 사다리꼴을 연결한 형태의 화로. 중국 동북부 라오양시 일대에서 많이 발견된다. 이 지역에서 할거한 공손씨와 관련 있으리라 추정된다.
83 합 2008~2012년 라오닝성 라오양시 묘포 50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라오닝성문물고고연구원	측면이 움푹 들어간 합은 지금의 라오양시 일대에서 많이 출토된다.
84 칼과 물고기무늬 도마 2014년 라오닝성 라오양시 묘포 25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라오닝성문물고고연구원	칼과 물고기무늬의 도마 모형도 지금의 라오양시 일대에서 많이 출토된다. No.81~84는 공손씨와 관계있으리라 추정된다.
85 우물 1943년 라오닝성 라오양시 거기벽화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라오양박물관	주위를 난간으로 둘러싸고 사방에 오르막길이 있는 우물 모형은 드물다. 소방용 우물과 같은 공공 우물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
86 ☆ 무구검기공비 20세기 초반 지린성 지안시 판차령 출토 삼국시대(위)·245년 라오닝성박물관	『삼국지』에는 위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해 큰 승리를 거두고 정복지에 기념비를 세웠다는 기술이 있다. 이것은 그 비석의 파편으로 추정된다.
87 복원 1호묘 벽화 모사본 원본: 라오닝성 라오양시 복원 1호묘 출토 20세기(원본: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라오닝성박물관	
-1 거마행렬도	공손씨 근거지였던 지금의 라오닝성 라오양시의 고분 벽화를 모사한 것이다. 이 그림에는 마차 3대와 그 호위 기마대가 그려져 있다.
-2 기마행렬도	기마 행렬의 일부. 화면 왼쪽 위에 검은색과 붉은색의 2단 장식 봉이 있다. 위나라가 왜나라 여왕 히미코에게 준 노란 깃발은 이런 형태의 표식이었으리라 추정된다.
-3 누각도	삼층 누각의 지붕에는 봉황 장식과 길고 가는 깃발이 달려 있다. 누각 왼쪽에는 검은 옷을 입은 인물이, 오른쪽에는 기예를 구경하며 흥겨워 하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다.
88 무덤을 지키는 인형 1999년 충칭시 우산현 맥타 47호묘 출토 후한시대·1세기 충칭중국삼협박물관	뿔과 엄니가 있고 긴 혀를 가슴까지 늘어뜨렸다. 왼손으로는 독사를 부린다. 촉나라 영토의 후한시대 묘에서 출토되었다. 초능력으로 묘를 수호하기 위해 부장한 것이다.
14 89 춤추는 인형 충칭시 출토 후한~삼국시대(촉)·2~3세기 충칭중국삼협박물관	관을 쓴 여성이 허리를 약간 숙인 채 소매를 쥔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왼손으로는 긴 걸터 자락을 살짝 당겨 올린다.

음성No.(ㄱ), No., 지정, 작품 명칭, 작자/출토 연도/출토지 등, 시대/연대 및 세기, 소장	해설
14 90 춤추는 인형 충칭시 출토 후한~삼국시대(촉)·2~3세기 쓰촨박물관	No.89와 같은 자세를 하고 있다. 아마 후한부터 삼국시대에 걸쳐 촉나라에서 유행한 무용의 상징적인 춤사위일 것이다.
14 91 금을 연주하는 인형 충칭시 출토 후한~삼국시대(촉)·2~3세기 충칭중국삼협박물관	무덤 부장용으로 만든 인형을 용(俑)이라 한다. 촉나라가 지배한 익주(지금의 쓰촨성, 충칭시 등)에서는 생동감 넘치고 온화한 표정의 용이 다양하게 제작되었다.
14 92 설창 인형 충칭시 중현 화등분묘군 11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촉)·2~3세기 충칭중국삼협박물관	반라의 남성이 한쪽 무릎을 꿇고 쾌활하게 만담 공연을 한다. 이런 특이한 형색의 연예인을 설창(說唱) 또는 배우라고 불렀다.
14 93 여자 인형 충칭시 장베이구 대석패 72중학 출토 후한~삼국시대(촉)·2~3세기 충칭중국삼협박물관	왼손에는 생선, 오른손에는 오리로 보이는 식자재를 든 여성. No.94와 함께 ‘천부(天府)로 불린 익주 지방의 명성에 걸맞은 풍부한 산물을 엿볼 수 있다.
14 94 요리하는 인형 충칭시 썬샤쿠구 출토 후한~삼국시대(촉)·2~3세기 충칭중국삼협박물관	도마 앞에 앉은 남성. 도마 위에는 생선 외에 가축의 머리 등 다양한 식자재가 놓여 있다.
95 ☆ 개 1957년 쓰촨성 청두시 천회산 3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촉)·2~3세기 쓰촨박물관	대형 경비견 모형은 촉나라 영토의 묘 입구 부근에 부장되었다. 후한 말기에 제작된 것이 많으며 당시의 불온한 세태가 반영되어 있다.
96 저수지 모형 1957년 쓰촨성 청두시 천회산 3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촉)·2~3세기 쓰촨박물관	논 관개용 저수지. 작은 배, 오리, 연꽃, 물고기 등을 배치했다. 논과 저수지는 촉나라 호족이 경영한 장원의 경제적 기반이자 부의 원천이었다.
97 서왕모 그림 벽돌 쓰촨성 청두시 청화구 조각사 출토 후한시대·2세기 쓰촨박물관	벽돌 한가운데 여신 서왕모가 용과 호랑이 의자에 앉아 있다. 앞쪽의 남성이 서왕모에게 신선이 되게 해달라 간청하고 있다. 신선이 되는 것은 궁극의 행복으로 여겨졌다.
98 ☆ 거마출행도 벽돌 1956년 쓰촨성 청두시 타오딩허 출토 후한시대·2세기 쓰촨박물관	이러한 벽돌을 전(磚)이라 하여 묘 벽에 박혀있던 것이다. 기마 종자와 마차가 다리를 건너고 있다. 행선지는 서왕모가 사는 천상세계일 것이다.
99 ☆ 제엄 그림 벽돌 쓰촨성 충라이시 화파이팡 출토 후한시대·2세기 쓰촨박물관	촉나라는 내륙 지방이지만 오래전부터 식용 소금을 생산했다. 유비는 소금 전매제를 시행해 국고의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100 신성한 나무 그림 벽돌 쓰촨성 면양시 쩌통현 출토 후한시대·2세기 면양시박물관	나무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표현했다. 나무 옆에 ‘목련’이라는 글자를 쓴 벽돌도 있다. 촉나라 영토에는 요전수(No.150)를 포함한 수목 신앙에 관련된 문물이 많이 발견된다.
101 금상감 말무늬 서도 후한시대·104년 라오닝성박물관	서도는 나무나 대나무로 된 패에 쓴 문자를 제거하는 데 쓰는 작은 칼이다. 금을 상감한 명문으로 보아 촉나라 영토의 관영 공방에서 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102 죽간 1996년 후난성 창사시 주마루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창사간독박물관	죽간은 길고 가는 대나무 조각에 글자를 쓴 것이다. 후난성 창사시 주마루에서 삼국시대 오나라의 죽간이 대량으로 발견되었다.
103 ☆ ‘동자 사작’ 명찰 1978년 후베이성 어저우시 악성 수니창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어저우박물관	‘동자 사작이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시옵니까? 본적은 광릉군 고우현, 자는 요유이옵니다.’라고 쓰여 있다. 명찰의 크기 등은 정해져 있었다.
104 ☆ 화장 팔레트 1978년 후베이성 어저우시 악성 수니창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어저우박물관	화장할 때 눈썹을 그리거나 호분을 조합하는 데 쓰던 팔레트로 추정된다. 오나라에서는 여성의 무덤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105 인형 2001년 후베이성 우한시 황피구 채당각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우한박물관	오나라의 인형은 소박하면서도 장면 구성이 다채롭다. 고깔모자를 쓴 사람, 관을 쓴 사람, 머리를 묶고 앉은 사람 등 각기 다른 직무를 나타낸다.

음성No.(ㄱ), No., 지칭, 작품 명칭, 작자/출토 연도/출토지 등, 시대/연대 및 세기, 소장	해설
107 ☆ 부(취사도구) 1977년 후베이성 어저우시 악강창 우물터 출토 삼국시대(오)·222년 어저우박물관	황무 원년(222) 오나라 무창의 관영 공방에서 제작한 3,438번째 물건이라는 명문이 쓰여 있다. 천도 직후 당시의 무창에서는 생산과 개발이 급선무였다.
108 그림무늬 띠고리 모양 돌기 신수무늬 거울 1970년 후베이성 어저우시 악강630공지 출토 후한~삼국시대(오)·2~3세기 어저우박물관	삼국시대 후베이성 어저우시 일대에서는 청동 거울이 활발하게 생산되었다. 이 유물과 같이 돌기 모양 등의 특징을 지닌 신수무늬 거울은 일본에서도 출토된다.
109 동향식 신수무늬 거울 1979년 후베이성 어저우시 악강자제소학교 출토 후한~삼국시대(오)·2~3세기 어저우박물관	신과 짐승의 모습이 같은 방향에서 보이도록 그려져 있다. 명문은 '천하대력(天下大業), '일월(日月)' 등 극히 일부분만 판독할 수 있다.
110 ‘가화 5 년 (236)’ 중립식 신수무늬 거울 1991년 후베이성 어저우시 악성 신묘탄황강판창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236년 어저우박물관	많은 신의 모습을 계단식으로 배치했다. 당시 오나라에서는 많은 신을 섬겼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신앙에서 도교가 발전했다.
111 불상과 기봉무늬 거울 1994년 후베이성 어저우시 악성 공전대루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어저우박물관	사방으로 뻗은 일 하나에 광배를 지닌 불상이 표현되어 있다. 중국 초기 불교 연구에 귀중한 자료 중 하나이다.
112 납작 항아리 1984년 장쑤성 난징시 광가산 7호묘 출토 삼국시대(오)·259년 난징시박물관	고원자 특유의 초록색 청자유가 부드럽게 녹아 광채를 띤다. 이 유물이 출토된 난징시 광가산 일대에는 오나라 유력자의 묘가 많다.
113 ☆ 준(술그릇) 1958년 장쑤성 난징시 초장문외묘 출토 삼국시대(오)·265년 난징시박물관	삼국시대에 오나라 영토에서 본격적으로 청자가 생산되었다. 이 유물과 비슷한 양 모양 그릇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114 ☆ 신정 항아리 1993년 장쑤성 난징시 장녕구 상방묘 출토 삼국시대(오)·272년 난징시박물관	신정(神亭)은 오나라부터 동진에 걸쳐 제작된 부장용 기물이다. 양쯔강 이남의 풍족함을 보여 주듯 누각, 저장용 독, 가축, 사람 등이 백백이 배치되어 있다.
115 ☆ 격(칸막이 그릇) 2008년 후베이성 어저우시 악강기개 광가노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어저우박물관	격(칸막이 그릇)은 칸이 나누어져 있는 그릇이다. 오나라부터 진나라에 걸쳐 청자는 점점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그릇으로 양산되었다.
116 ☆ 불좌상 1992년 후베이성 어저우시 석산 당각두 4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어저우박물관	불좌상은 무덤의 앞방과 뒷방을 잇는 용도(甬道)에 안치되었다. 즉, 이 불상이 처음부터 예배의 대상으로 제작되었음을 뜻한다.
117 ☆ 쟁반 모양 입 항아리 2002년 장쑤성 난징시 대행궁지구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난징시박물관	용이나 봉황 등을 철로 그리고 불상 등을 붙였다. 이국풍의 불임 무늬에서 대외 무역으로 번영한 오나라의 풍부한 문화 토양을 가늠할 수 있다.
118 ☆ 청동 북 1964년 광시 좡족 자치구 텡현 허핑구 구주향 출토 삼국(오)~남북조시대·3~6세기 광시민족박물관	이 유물과 같은 개구리, 기마인물상, 새 입체 장식이 있는 청동 북은 오나라의 '산월'이라 불린 집단과 연관되었으리라 추정된다.
 119 유리 반 1955년 광시 좡족 자치구 구이강시 공로철로 교차처 5호묘 출토 후한시대·1~3세기 광시좡족자치구박물관	고대 중국에서는 납과 바륨을 주성분으로 유리를 제작했으나 오나라 교주(지금의 광둥, 광시 등지)에서는 질산 칼륨, 석영을 원료로 만들었다.
 120 유리 연주 1955년 광시 좡족 자치구 구이강시 풍류령 13호묘 출토 후한시대·1~3세기 광시좡족자치구박물관	오나라에 복종한 교주(지금의 광둥, 광시 등지)의 사섭이 손권에게 매년 보낸 공납품에는 유리 제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121 유리 연주 1955년 광시 좡족 자치구 구이강시 고중부 15호묘 출토 후한시대·1~3세기 광시좡족자치구박물관	감색으로 된 것은 중국산, 붉은색은 인도 및 동남아시아산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122 고상식 창고 1999년 광시 좡족 자치구 허푸현 철귀령 8호묘 출토 후한시대·1~3세기 광시좡족자치구박물관	오나라 남부 교주(지금의 광둥, 광시 일대)에서는 창고 모형도 고상식으로 만들었다.
123 부뚜막 1955년 광시 좡족 자치구 구이강시 동호신촌 1호묘 출토 후한시대·1~3세기 광시좡족자치구박물관	부뚜막은 굴뚝이 밖으로 비스듬히 나 있어 연기와 함께 열도 멀리 배출하는 등 고온다습한 기후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음성No.(ㄱ), No., 지칭, 작품 명칭, 작자/출토 연도/출토지 등, 시대/연대 및 세기, 소장	해설
124 오수전 2009년 허난성 휘양시 명진현 조휴묘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휘양시문물고고연구원	위나라는 한왕조의 동전 ‘오수전’을 계승해 사용했다.
125 직백오수전 1985년 산시성 한중시 옌현 라오다오쓰진 사가장촌 등 출토 삼국시대(촉)·3세기 옌현박물관	유비가 쓰환성 일대를 획득하자 촉나라는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직백오수’(1개가 오수전 100개 상당의 가치)를 발행했다.
126 대천당천전 (1) 2005년 장쑤성 난징시 장녕구 상방묘 출토 (2) 1982년 장쑤성 난징시 장녕구 도오 출토 (3) 2009년 장쑤성 난징시 대산 4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난징시박물관	오나라도 손권이 오수전 1,000개 상당의 가치를 지닌 ‘대천당천’을 발행했으나 악평을 받고 폐지했다.
제 5 장 조조 고릉과 삼국대묘	
 127 ☆ -1 석판 -2 석판 -3 석판 2008~2009년 허난성 안양시 조조 고릉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허난성문물고고연구원	부장 품목을 새긴 석판. 세로로 긴 판(No.127-1)에는 ‘위 무왕(조조)이 늘 사용하던, 호랑이도 쓰러뜨릴 만한 큰 국’이라고 새겨져 있어 조조 고릉임을 밝히는 결정적인 사료이다. 이 두 장(No.127-2, 3)에는 ‘붉은색 무늬 깃이 곧은 윗도리(단문직령)와 흰색 하의(백기군), ‘높이 3척 5촌(약 80cm)짜리 병풍’이라고 새겨져 있다.
128 정(세발술) 2008~2009년 허난성 안양시 조조 고릉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허난성문물고고연구원	이 시기에는 유력자만이 여러 점의 세발술을 부장할 수 있었다.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황제 묘의 12점이다.
129 관(항아리의 일종) 2008~2009년 허난성 안양시 조조 고릉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허난성문물고고연구원	피장자를 위해 식량 등을 넣어두었을 저장 용기. 중국 남방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130 ☆ 관(항아리의 일종) 2008~2009년 허난성 안양시 조조 고릉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허난성문물고고연구원	조조 고릉에서 출토된 고온 소성 백자. 백자는 6세기 후반에 탄생했다고 추정되는데 이 유물은 이 추정 연대를 함참 앞당긴다.
131 비너 132 장식판 2008~2009년 허난성 안양시 조조 고릉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허난성문물고고연구원	새 시대를 개척한 조조의 묘에는 진기한 부장품이 많다. No.131과 No.132가 그 좋은 예로, 둘 다 용도는 불분명하다.
133 열리고 닫히는 도구 2008~2009년 허난성 안양시 조조 고릉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허난성문물고고연구원	맨 위의 돌기 2개를 집으면 포탄 모양 부분이 좌우로 열린다. 아래 판은 없다. 현재 비슷한 물건은 달리 없으며 용도는 불분명하다.
134 뿔송곳 2008~2009년 허난성 안양시 조조 고릉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허난성문물고고연구원	끝을 매듭에 끼워 띠를 푸는 도구이다. 황족이나 왕족의 묘에서 출토된다.
135 마노 원반 2008~2009년 허난성 안양시 조조 고릉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허난성문물고고연구원	이 유물처럼 선명한 줄마노 제품도 진귀하다.
136 다리 받침 2008~2009년 허난성 안양시 조조 고릉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허난성문물고고연구원	이 유물의 석재는 중국의 지질학에서는 ‘죽엽상회석(Wormkalk)’으로 분류된다. 조조의 아들 조식의 묘에서도 같은 종류의 석재를 사용한 제품이 출토되었다.
137 시중 드는 사람 인형 2008~2009년 허난성 안양시 조조 고릉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허난성문물고고연구원	조형이 매우 조잡하다. 묘의 규모나 만들새와는 대조적이다.
138 화상석 2008~2009년 허난성 안양시 조조 고릉 출토 후한~삼국시대(위)·3세기 허난성문물고고연구원	조조 묘의 묘실은 벽돌로 지었다. 조각한 화상석도 일부 사용했다. 도굴로 화상석은 파괴되었지만 큰 파편에서 화상석의 주제를 추측할 수 있다.
 139 ☆ 금제 짐승무늬 허리띠 꾸미개 2009년 안후이성 화이난시 서우현 수춘진 고묘 출토 후한시대·2세기 서우현박물관	몸이 휘어진 상서로운 동물을 배치하고 금가루와 귀석 상감으로 장식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장식이 달린 허리띠를 위문제 조비도 갖고 싶어 했다.

음성No.(ㄱ), No., 지정, 작품 명칭, 작자/출토 연도/출토지 등, 시대/연대 및 세기, 소장	해설
140 ☆ 석판 2015~2016년 허난성 위양시 서주촌 1호묘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위양시문물고고연구원	부장품 이름을 새긴 이러한 판은 조조의 묘에서도 출토되었다. 허리띠 금구 ‘선비두’, 위치왜 인전에 등장하는 견직물 ‘합사 비단’ 등이 확인된다.
141 ☆ 백옥 짐승무늬 선비두 서진시대·3세기 상하이박물관	몸이 휘어진 상서로운 동물로 꾸민 허리띠 꾸미개. 서진의 무제 사마염이 즉위식에 맞춰 특별 주문한 것이라 보는 견해도 있다.
142 규와 벽 1951년 산둥성 라오청시 동어현 조식묘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동어현문물관리소	규와 벽은 모두 중국의 전통적인 의례 도구지만, 후한시대 이후 쇠퇴했다. 조조는 위공에 책봉 된 후 과거의 의례 제도를 부활시켰다.
143 녹송석 원반 144 마노 원반 1951년 산둥성 라오청시 동어현 조식묘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동어현문물관리소	No.143, 144는 렌즈 형태로 연마해 판에 박혀 있었다고 한다.
145 돌공 1951년 산둥성 라오청시 동어현 조식묘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동어현문물관리소	부품의 일부로 추정된다. 중국의 지질학에서 ‘죽엽상회석(Wormkalk)’으로 분류되는 석재는 삼국지 시대에서는 조조와 조식의 묘에서만 출토된다(No.136).
 146 귀잔 1951년 산둥성 라오청시 동어현 조식묘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동어현문물관리소	귀잔은 술이나 국을 담는 그릇이다. 조식은 저 세상에서 이 술잔을 기울이며 지금도 시를 짓는 데 골몰해 있을 것이다.
147 관 (항아리의 일종) 1951년 산둥성 라오청시 동어현 조식묘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동어현문물관리소	‘약입(藥甘)’이라 새겨진 도장을 찍고 구워서 만들었다. ‘약’은 사후에도 평안하길 바라는 염원을 담은 연명장수의 선약이라고 추측된다.
148 물새, 닭, 개 1951년 산둥성 라오청시 동어현 조식묘 출토 삼국시대(위)·3세기 동어현문물관리소	위나라의 동물 모형은 후한 시대에 비해 간소하고 어딘가 애교가 묻어난다. 조식의 집 앞마당 예도 이런 가축이 있지 않았을까.
149 묘문 1977년 쓰촨성 청두시 피두구 난가원자 출토 후한시대·2세기 쓰촨박물관	대형 묘실에 설치된 돌문. 방패를 들고 경비를 서는 남성과 빛자루를 든 남성을 좌우에 조각했다. 둘 다 경의를 표하며 귀족을 맞이하는 모습이다.
 150 ☆ 요전수 1983년 쓰촨성 광한시 신평진 사상촌 출토 후한시대·2세기 광한시문물관리소(광한시박물관)	요전수란 돈이 열리는 나무를 말한다. 가지와 잎에는 불로불사의 서왕모, 사슴을 탄 선인, 400개의 동전이 장식되었다. 촉나라의 신앙과 관련된 기물이었다.
151 요전수 대좌 2012년 충칭시 평두현 임구묘지 2호묘 출토 후한~삼국시대(촉)·3세기 충칭시문화유산연구원	원래는 No.150과 같은 청동 요전수가 꽃혀 있었으나 발굴 당시 대좌 외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대좌는 벽사라는 가공의 동물을 형상화했다.
152 ☆ 천문 그림 관장식 2005년 충칭시 우산현 강동취 소구자 출토 후한~삼국시대(촉)·2~3세기 충칭중국삼협박물관	목관을 장식하던 원판. 궁전 등에 있는 지붕 달린 한 쌍의 문기둥인 꺾이 새겨져 있다. 꺾 중앙에 쓰여 있는 ‘천문’은 신선이 사는 천계로 들어가는 입구임을 나타낸다.
153 사람 얼굴무늬 기와 2006년 장쑤성 난징시 장닝구 상방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난징시박물관	지붕 처마 끝을 장식하는 기와. 난징(건업)은 손권이 황제로 즉위한 229년 가을에 오나라의 수도가 되어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다.
 154 호랑이 모양 관 대좌 2006년 장쑤성 난징시 장닝구 상방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난징시박물관	관을 놓는 석제 대좌. 웅크린 호랑이는 예로부터 호거(虎踞)라 불리며 무공으로 지역을 평정한다는 의미를 지녔다.
155 반지 2006년 장쑤성 난징시 장닝구 상방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난징시박물관	마주 보고 있는 용 두 마리를 조각했다. 용이 물고 있는 것은 불로불사의 선약을 지닌 서왕모를 상징하는 머리 장식 ‘승’일 가능성이 있다.
156 붓과 서도 2006년 장쑤성 난징시 장닝구 상방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난징시박물관	삼국시대는 종이뿐만 아니라 대나무, 나무로 된 패도 필사에 사용했다. 글씨를 잘못 썼을 때 대나무 표면을 긁어내는 서도와 붓은 지식인들의 필수품이었다. 오나라에서는 청자로 만들기도 했다.

음성No.(ㄱ), No., 지정, 작품 명칭, 작자/출토 연도/출토지 등, 시대/연대 및 세기, 소장	해설
157 ☆ 우차 2006년 장쑤성 난징시 장닝구 상방 1호묘 출토 삼국시대(오)·3세기 난징시박물관	예로부터 귀족은 마차를 탔다. 출토 자료를 보면 2세기 말부터 우차를 타는 사례가 조금씩 발견되어, 삼국시대에는 오나라 영토에서 우차의 발견이 늘었다.
에필로그 삼국의 종언: 천하통일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158 ‘진평오 천하태평’ 벽돌 1985년 장쑤성 난징시 장닝구 색서전와창 1호묘 출토 서진시대·280년 난징시박물관	‘묘 주인의 성은 주(朱), 본적은 강승이며 상묘에 살았다. 경자년(280)에 진나라가 오나라를 평정하고 천하가 태평해졌다’고 쓰여 있다.
159 매미무늬 관 꾸미개 2003년 산둥성 린이시 왕희지 고거 세연지 1호묘 출토 서진시대·3세기 린이시박물관	천자나 중신이 쓰는 관의 장식. 왕희지와 관련된 지역의 대형전실묘에서 출토되었다. 피장자는 낭야 왕씨의 지위 높은 사람이었으리라 추정된다.
160 관 (항아리의 일종) 2003년 산둥성 린이시 왕희지 고거 세연지 1호묘 출토 서진시대·3세기 린이시박물관	진한 유약을 입힌 작은 용기. 어린아이 셋이 잠들어 있는 대형 묘에서 출토되었다. 안에는 서진 왕조 유력자의 자식에게 어울리는 보물이 들어있었을 것이다.
161 항아리 2003년 산둥성 린이시 왕희지 고거 세연지 1호묘 출토 서진시대·3세기 린이시박물관	이 항아리를 포함한 약 30점의 뛰어난 청자는 강남에서 청자 생산이 활발했던 사실을 뒷받침한다. 또한 피장자의 높은 지위와 요충지였던 린이의 지역성을 전해준다.
162 사자 모양 그릇 1972년 허난성 위양시 광산창 출토 서진시대·3~4세기 위양박물관	사자 모양의 청자 용기. 비슷한 작품 중에서도 출중한 조형미를 자랑한다. 긴 전란의 시기를 끝내고 짧은 봄을 맞이한 서진 왕조의 수도 낙양(위양)에서 출토되었다.
 『삼국지연의』 이야기로 보는 수상 전투와 화살	
 조조 고통	



No. 151 요전수 대좌